

핫한 부부예능... 방송가 캐스팅 전쟁



SBS TV '동상이몽'의 한고은-신영수 씨 부부(왼쪽)와 TV조선 '아내의 맛'의 정준호-이하정 부부.



유동근·장미희 황혼 로맨스만 있었다

KBS 2 '같이 살래요' 시청률 36.9%로 종영

유동근·장미희의 황혼 로맨스가 처음부터 눈길을 사로잡았지만, 그것뿐이었던 게 문제였다.

10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방송한 KBS 2 TV 주말극 '같이 살래요' 마지막회 시청률은 36.9%를 기록했다. 자체 최고 기록이다.

'같이 살래요'는 박효섭(유동근 분)과 이미연(장미희), 노년의 로맨스를 주로 다루면서 다른 주말극들과 차별화했다.

두 인물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양 가정 간 갈등과 화합, 그리고 상속과 치매 문제 등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담았다. 사랑 앞에 당당한 두 사람의 모습은 달라진 시대 흐름을 잘 반영했다. 물론 유동근과 장미희의 노련한 연기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눈에 띄는 점이 없었다. 전작 '황금빛 내 인생' 같은 쾌속 전개도, 다양한 캐릭터도 없었다. 특히 박선아(박선영)-차경수(강성욱) 부부, 박유하(한지혜)-정은태(이상우) 커플, 박재형(여희현)-연다연(박세완) 커플 등 젊은 세대들의 캐릭터가 입체적이지 못했다.

그나마 최문식 역 김권이 위로는 어머니 미연과 새아버지 효섭, 또래로 재형, 다연과 생생하게 부딪히면서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다.

시청률 45% 벽을 뚫은 '황금빛 내 인생'이 출생의 비밀 등 다소 진부한 소재를 다루면서도 빠르고 다소 자극적이기도 한 전개를 선보였는데, 이와 차별화를 하기 위함이었는지 '같이 살래요'는 극에 전반적으로 큰 굴곡은 없었다.

그러나 보니 홈드라마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은 했지만, 전개가 지지부진하게 느껴지며 재미를 주지 못했다.

이에 '같이 살래요'는 1회 시청률 24.5%로 시작해 2회 30%를 뚫고 줄곧 20%대 후반-30%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43회에서 34.4%를 찍으며 30%대 후반 진입이 기대됐지만 큰 뒷심을 발휘하지 못한 채 36.9%로 종영했다.

앞서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아버지가 이상해', '황금빛 내 인생' 등 KBS 2TV 주말극이 3연속 히트한 것과는 대비되는 성적이다.

'같이 살래요' 후속으로는 최수종, 유이, 이장우 주연의 '하나뿐인 내편'을 방송한다. /연합뉴스

부부 예능이 방송계 새로운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고 있다. 연예인이 혼자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능·아이돌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육아 예능 등 이미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지만, 아직 부부 예능은 나름의 신선함을 유지하고 있다.

부부 예능 핵심은 출연자인 만큼, 각 프로그램은 자신들만의 캐스팅을 내세워 시청자들 눈길 잡기에 분주하다.

기존 인기 부부 예능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연예인 부부를 찾아 캐스팅하기 위해 힘쓰고 새 프로그램은 콘셉트 등에서 차별 포인트를 찾는다.

현 부부 예능 대표주자 격인 SBS TV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연예인 부부들의 일상을 공개해 큰 화제 물의를 했다.

'동상이몽2'가 보여준 부부 모습은 결혼을 앞둔 커플부터 몇십년 함께 산 중년 부부까지 다양하다.

한중 배우 커플 추자현-위사오광 부부는 '동상이몽2'를 통해 국민적 인기를 얻었다.

위사오광이 다정다감하게 추자현을 챙기는 모습은 시청자들의 부러움과 호뭇함을 동시에 샅고 한국식으로 부른 성에 '러블리'를 합쳐 만든 '우블리'라는 애칭도 생겼다.

현재는 출산과 육아로 하차했지만, 이 부부가 출연할 당시 '동상이몽2' 시청률은 12%를 넘기도 했다.

'동상이몽2' '아내의 맛' 등 다양한 부부 일상 리얼한 공개에 인기 출연진·콘셉트 차별화 위해 노력

가수 이무송과 노사연은 코믹한 중년 부부 모습을 보여줘 웃음을 선사했고 배우 인교진과 소이현 부부는 변함없는 달달함을 자랑한다.

최근에는 배우 한고은과 회사원인 그의 남편 신영수 씨 일상이 공개돼 많은 시청자의 관심을 받았다.

'동상이몽2'를 연출하는 김동욱 PD는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부부를 캐스팅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무송-노사연 씨의 경우 짝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고 한고은-신영수 씨는 연예인과 일반인이 만나 결혼하기 힘든 만큼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PD는 "스페셜 MC의 경우도 시청자들이 그들의 결혼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분으로 섭외한다"고 덧붙였다.

TV조선 '아내의 맛'도 캐스팅부터 화제가 됐다.

한소원-전화, 여예스다-홍혜걸, 정준호-이하정 부부 등이 출연한다. /연합뉴스

이 중 한소원-전화 커플은 18세 나이 차로 방송 전부터 주목을 받았고 방송 이후에도 노산에 대비해 난자를 냉동해두는 모습 등으로 높은 화제성을 이끌었다.

'아내의 맛'을 연출하는 서혜진 PD는 최근 "부부 예능은 리얼리티 관찰 예능의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라며 "캐스팅이 90%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E채널 '별거가 별거나'도 시즌3으로 돌아온다.

부부들을 잠시 떨어져 지내게 해 서로의 소중함을 알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시즌 동안 남성진-김지영 부부, 채리나-박용근 부부, 강성진-이현영 부부 등이 출연해 인기를 끌었고 E채널 간판 프로그램이 됐다.

시즌3에는 가수 김태원과 이현주, 배우 임성민과 마이클 영거, 가수 배기성과 이은비, 소리꾼 김나니와 정석순 부부가 출연한다.

차별화를 위해 여행을 콘셉트로 한 부부 예능도 등장했다. tvN은 다음 달 스타 부부가 여행을 함께 떠나 취향에 따라 남편과 아내가 따로 여행하는 모습을 담은 '따로 또 같이'를 방송한다.

개그맨 박미선과 이봉원 부부, 배우 심이영과 최원영 부부, 연년생 두 아들과 육아 전쟁 중인 동갑내기 배우 강성연과 김기은 부부가 출연해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여영차 바다야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치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사생결단 로맨스 (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러블리 호러블리(재)		00 푸리가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제보자들(재)	00 12 MBC 뉴스 25 헬로키즈 동물교실 2 55 UHD 스페이스 강원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토크콘서트 화통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00 경성판타지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와이드 코리아 플러스(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재)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00 자동공부채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프리파라 3 55 뽀빠뽀 모두야 놀자	
[4]	00 시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판다랑 55 5 MBC 뉴스	00 고향건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1 대 100(재)	15 가자! 낭만 고향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00 2017 MBC 경영평가 결과보고 15 생방송 빛날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35 전라도 매력청	50 2018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칠레>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8]	25 내일도 맑음		5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10]	00 시사기획 창 55 UHD 슬터	00 러블리 호러블리	00 사생결단 로맨스	00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11]	00 KBS 뉴스라인 30 오늘밤 김제동	10 불빨간 당신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00 역사저널 그날 50 와이드 코리아 플러스	40 크로스미디어 프로젝트 2부작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띠띠뽀 띠띠뽀(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톡! 보니 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행복한 교육세상	19:00 미니특공대 X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다큐 오늘	19:30 EBS 뉴스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19:50 극한직업 스페셜(재)
07:30 띠띠뽀 띠띠뽀	13:40 엄마를 찾지마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1~2	14:30 미니특공대 x	<인생은 축제가, 멕시코 2부 삶은 여행이니까 그들의 신>
08:30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5 파프리카	<세상 끝 고원을 가다 2부 고원에 사랑이 산다>
09:00 뽀뽀뽀 뽀로로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1:30 한국기행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2	<세상 끝 고원을 가다 2부 고원에 사랑이 산다>
09:40 메디컬 다큐 - 7요일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21:50 EBS 다큐프라임 <비밀의 땅 파미르>
10:30 한국기행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22:45 조식포함 아파트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고추장찌개와 반죽조 오징어조림>	16:45 당동명 유치원1~2	23:55 엄마를 찾지마(재)
	17:15 마사와 곰	24:50 한국영화특선 <재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1일(음8월2일 丙午)

<p>子 36년생 흔한 일은 아닐 터이니 잘 살펴보자. 48년생 전체적인 대안이 되어 줄만한 확실한 해결책이 생긴다. 60년생 불완전하다고 여긴다면 일단 실행하면서 체계를 잡아도 된다. 72년생 확실하다면 사전에 변경해도 무방하다. 84년생 무리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00, 50</p>	<p>午 42년생 긍정적인 마인드가 발전을 이끌 것이다. 54년생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리라. 66년생 절대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78년생 이유 불문하고 함께해야 할 판도에 놓여 있느니라. 90년생 돈이 관건이다. 행운의 숫자 : 47, 42</p>
<p>丑 37년생 지금의 판도로써는 무의미하다. 49년생 현재 눈에 띄는 바가 바로 그 목적 대상이다. 61년생 고르지 않은 성공이다. 73년생 심사숙고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85년생 마음먹은 대로 해 나가도 전혀 지장이 없겠다. 행운의 숫자 : 82, 14</p>	<p>未 43년생 넉넉하게 잡아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5년생 순식간이니 잘 살펴야 하느니라. 67년생 기본적인 것들을 소홀히 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79년생 합체해야 물리칠 수 있느니라. 91년생 순풍에 돛을 다니 순조롭기 그지없다. 행운의 숫자 : 93, 59</p>
<p>寅 38년생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분주하게 돌아다닌다. 50년생 전문성의 확보만이 성사로 이끄는 구간이 된다. 62년생 방심한다면 호기가 약재로 변하리라. 74년생 냉철한 고찰이 필요한 때이다. 86년생 예의 주시한다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8, 09</p>	<p>申 44년생 강한 행운의 암시가 보인다. 56년생 행위자의 정확도가 관건이 될 것이다. 68년생 전체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80년생 상황이 경색되기 전에 용통을 부리는 것이 맞다. 92년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이룰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3, 71</p>
<p>卯 39년생 진전이 보이기 시작한다. 51년생 미리서 준비해 놓지 않으면 당래지사 앞에서 당황하게 된다. 63년생 전례에 비추어 처리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겠다. 75년생 전반적인 관리에 세심한 공을 들여야 할 때다. 87년생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행운의 숫자 : 38, 38</p>	<p>酉 45년생 즉시 조치했을 때에 부작용을 줄인다. 57년생 깊이 있는 인식의 계기가 될 것이다. 69년생 결실을 맺기 위해서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느니라. 81년생 완급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불과할 것이다. 93년생 오래 가지 못할 수다. 행운의 숫자 : 12, 55</p>
<p>辰 40년생 자신의 마음과 감정은 앓을 것이다. 52년생 밝은 미래를 기억한다. 64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점검해야만 후환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76년생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도다. 88년생 몸에 밴 악습 때문에 황당한 경우가 생기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33, 67</p>	<p>戌 34년생 뒷감당할 일까지 염두에 두고 임하라. 46년생 가능성이 없다는 아예 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58년생 외의 인연이 활로를 열어줄 것이다. 70년생 준비하고 있으면 적기에 용처가 나타나리라. 82년생 흥성이 지고 길성이 떠오르는 기세이다. 행운의 숫자 : 72, 84</p>
<p>巳 41년생 완급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불과할 것이다. 53년생 소강상태를 지나서 활성화 되리라. 65년생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77년생 노파심은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89년생 중차대한 판단의 분수령에 놓여 있으니 장고를 거듭하라. 행운의 숫자 : 83, 60</p>	<p>亥 35년생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경사가 있겠다. 47년생 이 해관계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다. 59년생 성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71년생 보완해 아를 차지에 서게 된다. 83년생 무리하지 말고 상식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니라. 행운의 숫자 : 84, 68</p>